

“내 점수는 80점… 믿음 주는 투수 되겠다”

‘마무리 후보’ KIA 한승혁

스피드보다 공격적 피칭 집중

무리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 준비

“80점입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승혁에게 2017 스프링캠프에 대한 자평을 부탁했다. 잠시 캠프를 돌아본 그는 자신에게 ‘80점’이라는 넉넉한 점수를 주었다. 100점에 20점이 부족한 점수. 20점에 대한 의미를 묻자 한

승혁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답을 했다.

이번 KIA의 오키나와 캠프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한승혁이었다.

지난 시즌 필승조로 성장한 한승혁은 이번 캠프에서도 그 페이스를 이어갔다. 더

매섭고 정교해진 공을 던진 그는 4차례 연습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벌써 154km를 찍었고, 139km의 포크볼도 뿌렸다. 단 하나의 볼넷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사실 지난해 캠프에서도 그는 마운드의 기대주였다. 코칭스태프는 물론 선수들 사이에서도 한승혁의 이름이 키플레이어로 언급됐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본 모습은 올 시즌과는 달랐다. 마음이 급했던 그는 팔꿈치 통증까지 안고 캠프를 치렀다. 결국 캠프가 끝난 후 재활조가 된 한승혁은 전력 외 선수로 시즌을 출발했다.

하지만 올해 캠프는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다. 예년과 달리 멀리 보면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오버 페이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승혁은 “스피드에 신경 쓰지 않았다. 스피드가 아니라 타자 상대하는 데 집중했다.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마음이 앞설 때가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묵묵하게 페이스 조절도 하고 있다.

“연습경기라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막상 마운드에 오르면 몸이 알아서 100%로 움직이게 되더라. 어쩔 수 없는 투수”라며 웃음을 보인 그는 “최대한 조절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상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배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캠프 종착점으로 가고 있지만 이번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승혁은 캠프 마지막 허리 통증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다.

한승혁은 “허리 통증은 처음이라서 고생도 했지만 많이 좋아졌다. 몸 관리 잘하고 있다. 남은 시간 잘 보내고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팔꿈치 통증에 이어 왼 엄지손가락 골절상을 당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한승혁은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구와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했다. 달라진 마음가짐은 마운드 위의 모습까지 바꿨다.

롤러코스터를 타던 그는 지금은 KIA의 가장 믿음직한 불펜 자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승혁을 지켜보는 김기태 감독의 모습에서도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승혁의 불펜 피칭날 김 감독은 취재진에 “(한)승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물은 뒤 “호시노 (전)감독이 경이하는 모습을 보고 마무리 같이 던진다면 칭찬을 하시기도 했다”며 아뵤 미소를 짓기도 했다.

기대로 시작된 실망으로 끝나곤 했던 지난 시즌이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 한승혁은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지키는 꿈을 꾸고 있다.

한승혁은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시즌 준비를 하겠다. 지난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경험으로 배운 것과 작년 좋았던 느낌을 살려서 올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언젠가 내가 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마무리에 대한) 욕심도 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생각하는 피칭으로 믿음을 주는 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이 김기태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 피칭장에서 불펜피칭을 하고 있다.

독서하고 일본어 배우고

‘주경야독’ KIA 캠프

음이 담긴 독서 시간이다.

선수들이 챙겨온 책은 다양하다. “자서전을 즐겨본다”는 박지훈은 축구 레전드 홍명보·황선홍의 자서전을 가져왔다. 복귀 후 새 시즌을 앞둔 안지훈은 ‘자존감 수업’과 ‘미움받을 용기’를 보며 마음을 다지고 있다. 중국의 4대 기서를 섭렵했다는 박경태는 ‘심리학, 삼국지를 말하다’를 읽었다. 치열한 경쟁의 시즌을 맞은 서동욱은 ‘단단해지는 연습’을 선택했다.

자기 개발서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챙겨온 선수가 대부분이지만 책과

씨름을 하며 캠프의 밤을 보낸 이도 있다. 투수 최고참 김광수는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더라’와 함께 은사인 이광환 감독에게 선물 받은 달라이 라마의 ‘용서’를 머리맡에 두었다.

김광수는 “예전에도 두 번 읽어봤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며 감사를 내놓았다.

2017 프로야구 최연소 선수인 김석환이 선택한 책은 ‘마시멜로 이야기’다. 첫 스프링캠프라 훈련 하기에다 바빴을 막내지만 마지막 장까지 다 읽긴 김석환은 “당장이 아닌 멀리보고 하라는 글이라”

며 한 줄 감상평을 내놓았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책을 다 읽은 선수도 있지만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소개글은 다 읽었다”, “와이프가 챙겨준 대로 일단 듣고는 왔다”며 솔직한 대답과 함께 멋쩍은 웃음을 지은 선수들도 있었다.

한편 선수들은 일본어 공부도 병행하고 있다. 선수단 스케줄표 비교란에는 ‘오늘의 일본어’ 코너가 생겨, 간단한 단어와 인사말 등이 매일 두 개씩 업데이트된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덕아웃을 오가면서 일어 공부하기를 바라는 의미. 지난 마무리 캠프 때 “하루에 두 단어 정도씩만 공부해도 캠프 기간에 많은 단어를 외우게 되는 것이다”던 김기태 감독의 의사가 반영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현 LPGA 데뷔전 3위

배짱 장타력 버디 능력 ‘A급 경쟁력’

‘슈퍼루키’ 박성현이 지난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에서 막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최종 4라운드 11번홀에서 샷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성현(24)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주목하는 특급 신인이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LPGA투어 회원으로 공식 데뷔전을 치른 박성현은 단독 3위에 올라 ‘슈퍼루키’로서 이목을 끌었다. 정신력과 장타력, 그리고 버디 사냥 능력은 손색이 없었다.

비회원 신분 초청 선수 때와는 심리적 부담감이 더하다. 더구나 박성현은 큰 기대 속에 연간 20억 원이 넘는 후원 계약까지 따낸 터라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박성현은 1라운드 1번홀 티샷 때 “그렇게 긴장해보진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부담감을 더한 것은 조 편성이었다. 대회 주최 측은 1라운드에서 박성현을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전인지와 묶었다. 전날 성적에 따라 동반 선수가 달라지는 2, 3, 4라운드에서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리디아 고, 미셸 위 등을 상대했다. 이런 선수들과 동반 플레이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펼쳤다는 사실은 신인답지 않은 배짱과 자존감을 지녔다는 얘기다.

박성현의 장기인 장타력도 빛났다. 평

균 드라이버샷 비거리는 264.75야드로 국내에서처럼 압도적이지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장타를 평평 날렸다. 최종 라운드 8번홀(파5)에서는 3번 우드 티샷에 이어 4번 아이언으로 핀을 곧장 노리는 과감한 샷으로 5m 이글 기회를 만들었다. 웬만한 선수들은 세 번 만에 그린이 올리기도 버거운 559야드짜리 16번홀(파5)에서도 샷 두 번으로 그린을 공략했다.

박성현은 그린 적중률이 70.8%에 그쳤지만 그린이를 공략할 때 핀을 직접 겨냥했다.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는 그린 적중률을 떨어뜨리지만 버디 확률은 한결 높아진다. 박성현은 이번 대회에서 버디 25개를 뽑아냈고 그린 플레이도 나 무랄 데가 없었다.

하지만 속제도 남겼다. 박성현은 그린이를 놓쳤을 때 그린이 불을 올리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퍼트 한 번으로 마무리할 만큼 가깝게 붙이지 못했고 핀 위치가 까다로울 때는 가깝게 붙이려는 시도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어이없는 3퍼트도 두 번 이상 저질렀다. 아울러 다소 플레이가 느리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연합뉴스

김현수 시범경기 첫 2루타… 1안타 1타점 1득점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첫 장타를 신고했다.

김현수는 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김현수는 시범경기 2호 타점과 1호 득점을 신고했다.

김현수는 1회초 2사에서 마이크 펠리를 상대로 중견수 쪽 2루타를 터트렸다. 지난해를 포함해 시범경기 첫 장타

다. 3회초 무사 만루에서는 2루수 앞 땅볼로 1타점을 올렸고, 트레이 만치니의 2루타와 폭투로 홈을 밟았다.

박병호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에 5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고 초청선수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뛰는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와 최지만(뉴욕 양키스)은 결장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12일 에인절스전 실전 등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재기를 다짐하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이번 시범경기 첫 실전 등판 날짜가 잡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빌 사이킨 기자는 7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12일 클러스 리그(애리조나주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메이저리그 팀 간의 시범경기 리그)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8일 클레이턴 커쇼, 9일 리치 힐, 11일 홀리우 리아스와 브랜던 매카시가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12일 상대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다. 애초 로버트 감독은 8일 혹은 9일에 류현진이 시범경기 첫 등판을 소화할 거라 예고했다. 하지만 류현진은 5일 라이브 피칭에서 2이닝을 소화했고, 날짜상으로 8일이나 9일은 실전 등판이 아닌 불펜 피칭 차례였다.

2015년 왼쪽 어깨 관절, 2016년 왼쪽 팔꿈치 과사 조직 제거 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올해 복귀를 목표로 구슬땀을 쏟았다. 이미 세 차례 라이브 피칭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연합뉴스